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벌리신 해방후 여성들이 군수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

궁영숙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국방공업건설구상을 받들어 여성들이 병기생산에 적극 참가하여 새 조선의 국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그들의 사상을 개변시키며 부강한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전집》 제6권 431페이지)

해방후 병기공업부문에 여성들을 적극 진출시키는것은 그들이 실천활동과정에 민주조선의 여성으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게 하며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해방후 여성들이 군수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군수공업부문 여성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것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 여성들의 의식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문맹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맹을 퇴치하고 밝은 사상을 타파하는것은 그들이 민주조선의 여성으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고 새 조선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군수공업부문의 여성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잘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시었다.

주체38(1949)년 3월 평양통신기재제작소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들이 많

이 일하고있는 조립직장에서 일부 여성들이 일본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된 조선여성들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일체의 잔재와 봉건잔재를 쓸어버리고 여성들의 진정한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것이며 모든 여성들이 건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우리 여성들이 일본식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도 민족적의분을 느낄줄 모르는것은 아직 그들의 의식수준이 낮고 계급적각성이 무딘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문맹퇴치운동과 군중계몽사업을 다그쳐 그들의 사상의식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들속에서 일체의 잔재를 뿌리내는것과 함께 밝은 생활인습과 밝은 사상을 타파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주체37(1948)년 6월 기관단총생산에서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병기공장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 공장여성들속에 밝은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공장녀맹조직에서 그를 타파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병기공장 녀성로동자들이 기관단총생산은 물론 문맹퇴치사업과 밝은 사상을 타파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핵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군수공업부문의 여성들을 녀맹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이 힘있는 력량으로 군수공업부문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여성들을 조직적인 역량으로 묶어세워야 건국사업에서 그들의 힘을 최대한로 발양시킬수 있다.

주체35(1946)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는 병기공장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에 녀맹조직이 꾸려졌는가를 물으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공장에 출근하는 여성로동자는 불과 10여명 되나마나 하였고 따라서 일군들은 그 적은 인원을 놓고 조직을 무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었다. 그리하여 공장에 당세포는 조직되어있었으나 녀맹조직은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앞으로 병기공장이 건설되면 많은 여성로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게 되겠는데 공장녀맹조직을 내오고 그 역할을 높여야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인차 녀맹조직을 꾸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군수공업부문의 첫 녀성조직이였다.

그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첫 걸음을 댈 녀맹조직의 사업방향과 방도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면서 녀맹조직들을 계속 확대하여 모든 여성들을 다 녀맹조직에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군수공업부문 여성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그들이 병기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할수 있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준비되게 되였다.

해방후 여성들이 군수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군수공업부문의 여성들이 공장의 위생문화사업에 앞장서며 군수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신것이다.

여성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

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량으로 키우자면 그들을 실천활동에 적극 참가시켜야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병기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기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한몫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성인학교에 나와 글도 배우고 공장에 나와 일하기 시작하였다.

결과 처음 병기공장이 건설되고있을 당시 공장에 나오는 여성들이 불과 10여명이였다면 그로부터 얼마 안되는 사이에 그 수는 늘어나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병기공장에서 녀맹조직이 여성들을 불러일으켜 위생문화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병기공장에 녀맹조직이 무어진지 얼마 후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장복구사업이 많이 진척된것은 좋은 일인데 봄철위생문화사업이 잘되지 않은것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때 생산건물이 채 완공되지 못하다보니 수리정비한 기계설비들은 대충 천막만 씌워 밖에 세워둔채로 있었고 건설장 여기저기에는 겨울에 쓰고 내다버린 오물들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하다가 하루밤을 묵어가도 숙영지안팎을 깨끗이 거두었으며 숙영지에 세면장도 만들어놓고 모든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문제는 로력을 따로 낼것없이 공장녀맹조직을 발동해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그후 공장에서는 여성들과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여성들이 병기생산에 직접 참가하여 한몫을 맡아하도록

이 끌어주시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병기생산활동은 남자들이나 할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있었고 따라서 녀성들은 식당 일이나 하고 로력일지를 정리하는 등 부차적인 일이나 참가할수 있는것으로 여기고있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로력이 모자라 안타까워하면서도 녀성들을 받아쓸 생각은 하지 못하고있었다.

주체38(1949)년 6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중앙포병수리소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것처럼 수리한 관측기재를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녀성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투기술기재를 다루는 이런 어려운 일을 녀성들이 꽤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일군들에게 자꾸 로력타발을 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녀성들을 믿고 과업을 주어보면 알것이 아닌가고 타일러주시면서 지금 우리 녀성들의 건국열의는 대단히 높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녀성들이여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보다 일도 맵싸게 해제낄수 있다는 믿음을 표시하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포조준경이나 쌍안경수리와 같이 세밀한 작업은 녀자들이 더 잘할수 있다고, 관측기재수리를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녀성들에게도 기술을 배워주면 남자들 못지 않게 일을 잘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후 많은 녀성들이 포병수리소에 들어오게 되였고 녀성수리원편제가 생겨나게 되였다. 수리소는 노래와 웃음이 차넘치는 흥겹고 보람찬 일터로 되였으며 수리실적도 배나 올라가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녀성들이 군수피복생산에서 로력적혁신을 일으키도록 이

끌어주시었다.

군복시제품을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군수피복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주체38(1949)년에 들어와 군복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데 대한 과제를 받아안게 되였다.

이것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로서 중국혁명을 지원하고있던 조선인부대들을 소환하여 새로 2개의 인민군보병사단을 편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피복공장을 찾으시고 군복생산전투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고무하기 위한 강연회를 직접 진행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복생산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제 기한내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 600벌의 군복을 한달동안에 만들어낼데 대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한 재봉대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공장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이 공장의 실태와 늘어난 생산과제에 맞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동자들이 단위시간내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할데 대한 문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며 기계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체계도 세우고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생산과정에 기대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을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으로 생산토대를 튼튼히 갖

춘 이 공장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한 생산과제만 수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귀중한 자재를 망탕 써버리는것은 다 애국심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한조박의 천, 한오리의 실, 한장의 가죽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이 공장 로동계급은 주체38(1949)년 5월말까지 공장 앞에 증산과제로 맡겨진 군복전량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해방후 녀성들이 군수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군수공업부문 녀성로동자들의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이다.

녀성로동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은 그들을 생산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병기공장에서 녀성로동자들에게 작업조건을 잘 갖추어주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주체37(1948)년 11월 평천리(당시)에 나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군관혁명과 권총집을 만들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작업장을 찾으시였다.

녀성로동자들이 깔고앉은 판자와 가로질러 길게 놓여있는 작업틀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업틀을 잘 만들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녀성로동자들이 작업장바닥에 판자를 깔고앉아 일하면 일하기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말

씀하시였다. 그리고 작업틀의 부족점을 퇴치할 방도도 의논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권총집모서리를 꺾매고있는 한 녀성수봉공의 손을 보시며 골무를 꼭 끼고 일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어느해 가을 평양통신기재제작소를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업장이 덥고 산냄새가 난다고 하시면서 녀성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면 건강이 나빠질수 있다고, 송배풍장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공장일군들이 녀성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38(1949)년 3월 군수피복공장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복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일하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공장이 이동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로동자들이 어디에 거처지를 정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때 로동자들은 당장 거처할만한 건물이 없어서 개인집들에 기숙하고있었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남자들도 아닌 녀성들이 남의 집에 얹혀살자니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런데도 전혀 내색을 안하고 일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에게 일만 시키면 된다는 낡은 사상관점을 버리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녀성들에게 탁아소를 꾸려주어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도록 하시였다.

병기공장건설이 한창이던 시기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건설장에 나오시였다가 탁아소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생

산건물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릴 형편이 못된다면 우선 공장가까이에 있는 살림방이라도 한두어칸 내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이 건물은 해결한다 쳐도 당장 보육원이 없다고 말씀드리자 전문교육을 받은 탁아소보육원이 없는것만큼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본 녀성들을 선발하여 쓸데 대해서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천리에 나오시는 길로 병기공장에 꾸려놓은 탁아소의 운영정형부터 알아보시였다. 애기어머니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기쁨속에 들어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탁아소의 후방물자공급정형에 대해서도 료해하시였다. 일군들은 쌀과 기름은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으나 간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앞아서 우는 소리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탁아소에서 닭과 돼지도 기르고 집주변에 남새도 심을데 대하여서와 간식은 생산을 시작한 평양곡산공장과 련계를 가지고 공급받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병기공장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탁아소가 꾸려지게 되는데는 이처럼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남자들과 똑같이 나서게 하시려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뜻과 한량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자립적군수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녀성들도 당당히 떨쳐나서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스승이시였다.